

부모의 지지 및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의 관계

지 선 근 한 종 철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지지 자원인 부모의 지지와 그에 대한 근접성을 반영하는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대학생들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그 상호작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남녀 대학생 756명으로, 부모의 지지 척도는 본 연구자가 번역,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는 부모가 있는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얼마나 멀게 느껴지는가를 묻는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대학생의 적응 측정은 대학생 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적응 및 하위 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학년과 성별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의 지지는 전체 적응과 하위척도 모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는 전체 적응과 학업적 적응, 개인-정서적 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지지와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간 상호작용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두 변인의 상하 집단을 구분하고 학년을 공변량으로 통제한 상태에서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변인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였으나 상호작용 효과는 의미있게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 부모의 지지와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자 집단과 여자 집단을 분리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자 집단의 경우 부모의 지지는 전체 적응과 하위척도 모두에 영향을 미쳤고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는 개인-정서적 적응에만 영향을 미쳤으며, 여자 집단의 경우 역시 부모의 지지는 전체 적응과 하위척도 모두에 영향을 미쳤고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는 대학환경에의 적응을 제외한 전체 적응과 하위척도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지지와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대학생들의 정신 건강 및 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며, 특히 여학생의 경우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수록 남학생보다 더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사회로의 진입은 그 자체로 많은 변화를 의미한다. 대학생 시기는 발달 단계상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고등학교 때까지의 청소년기와 연속선상에 있다기 보다는 다소 비약적인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대학생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고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과 자율성을 획득하기 시작하게 된다. 환경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되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체험하고, 많은 수의 대학생들이 처음으로 집으로부터 떨어져 새로운 대학 환경에서 생활하게 된다. 이러한 특징적인 우리사회의 대학생은 급격하리만치 내적 외적 변화를 접하게 되고 적응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적응이란 한 개인이 그와 관계를 맺고 있는 외부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경우에 따라서 환경의 요구에 맞도록 자신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환경을 자신에게 맞도록 능동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의 적응이란 대학생들이 대학이라는 환경속에서 생활하면서 학업, 대인관계 및 정서적 측면에서 대학생활의 요구에 대처하는 적절한 반응을 뜻한다(정은희, 1992). 대학생 시기의 변화에 대한 적응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처자원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개인의 자원은 크게 개인내적인 자원과 개인외적인 자원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지능, 성격, 자기-존중감, 대처 전략과 같은 개인내적인 자원 역시 적응에 필요한 요인이지만, 지지 자원으로써의 개인외적인 자원 또한 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다. 대학생과 같은 과도기적 시기에 있어서 외적인 지지 자원의 유무와 그에 대한 근접성은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대학생 시기에는 개인내적인 변화 이외에도 부수적으로 환경

적인 변화까지 발생하므로, 기존의 지지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새로운 지지 자원을 개발해야 하는 부담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기는 발달적 변화와 환경적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시기이므로(Hamburg, 1974; Petersen & Spiga, 1982), 지지 자원 중에서도 가족의 기능이 심리적 적응과 문제해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부모의 지지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대학생 시기에 있어서 심리적 환경적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와의 관계와 적응간 상관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초기 아동기에 관련된 것이 많다. Compas(1987)에 의하면, 아동기에 부모는 자녀의 가치와 믿음에 영향을 주며, 대처전략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거나 저해한다고 한다. 그러나 부모와의 관계는 대학생 시기의 적응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대학생 시기가 심리적 독립과 분리의 과제를 요구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모와의 애착은 대학생의 적응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Kenny & Donaldson, 1991).

부모의 지지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연구되었다. Avison과 McAlpine(1992)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지지는 청소년기 높은 수준의 심리사회적 자원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Holahan, Valentiner, 그리고 Moos(1995)는 연구 결과, 부모의 지지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이 부모의 지지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보다 더 좋은 적응과 낮은 심리적 고통의 수준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적응이 높은 대학생들의 부모는 더욱 지지적이고 보살피주는 방식으로 자녀의 대학생활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적응이 낮은 대학생의 부모는 냉랭하고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aker & Siryk, 1984).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이전의 가족 환경과 적응에 대한 연구들과 일치하는 것이다(Avison & McAlpine,

1992; Borrine, Handal, Brown, & Searight, 1991; Grych & Fincham, 1990; Hoffman & Weiss, 1987; Rice, Cole, & Lapsley, 1990). Garmezy, Devine, 그리고 Tellegen(1980)은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잘 견디어 내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발견했는데 이들은 대부분 부모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고 있었으며 부모의 지지를 통해 스트레스의 부적 영향이 완화되며, 적응적인 대응 행동을 증진시킨다고 하였다.

Petersen(1980)은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는 청소년들은 자기-존중감이 높으며, 좀 더 긍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지적인 부모들이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빈번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자녀에게 주의해야 할 것과 무시해도 좋을 것 등에 관한 정보와 위협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공해주어 청소년들이 스트레스에 대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며, 자녀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표현하도록 격려해주고 이에 동조해줌으로써 분노를 감소시키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의 다른 연구들에서도 부모와의 조화로운 관계와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녕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Murphy, Silber, Coehlo, Hamburg, & Greenberg, 1963; Offer & Offer, 1975), 부모와의 친밀함과 사회적 유능감 간에도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Bell, Avery, Jenkins, Feld, & Schoenrock, 1985).

부모의 지지에는 부모의 갈등 또한 포함될 수 있다. 부모의 갈등은 주로 아동기 자녀에게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많은 연구 결과, 부모의 갈등과 아동의 내현화 그리고 외현화된 행동 문제들은 정적인 관련이 있음이 발견되었다(Cummings & Davies, 1994; Emery, 1982; Fantuzzo & Lindquist, 1989; Grych & Fincham, 1990). 아동이 부모의 갈등에 반응

하는 방식은 궁극적으로 적응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Cummings, 1987; Grych & Fincham, 1990; O'Brien, Margolin, John, & Krueger, 1991). Grych와 Fincham의 모델과 다른 스트레스 대처 모델들(Lazarus & Folkman, 1984)에 의하면, 부모의 갈등에 대처하는 아동의 노력은 상호연관된 일련의 정서적, 인지적, 그리고 행동적 반응들과 관련이 있으며, 각각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O'Brien, Bahadur, Gee, Balto, 그리고 Erber(1997)의 연구에 의하면 공격적인 부부 갈등은 아동의 낮은 자기-가치감, 어머니 보고의 아동의 외현화된 행동 문제, 교사 보고의 아동의 내현화된 행동 문제를 예언해 주었다. 부모의 갈등은 아동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적응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인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Borrine et al.(1991)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갈등은 청소년의 부적응과 유의미하게 관련이 있었으며, Grych와 Fincham (1990)은 자녀가 부모의 갈등이 자신과 부모와의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지각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가족내에 부부 갈등과 역기능적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대학생들은 더 많은 심리적인 문제를 보고하고 있다(Hoffman & Weiss, 1987).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부모의 갈등은 부모의 지지만큼 강하게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본질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요약하면, 부모의 지지는 더 나은 심리적인 적응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지지는 더 건설적이고 덜 회피적인 문제해결을 하도록 돕고(Compas, 1987), 지각된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켜 적응적인 대처방식을 기르게 한다(Avison & McAlpine, 1992; Bandura, 1982).

지지 자원의 접근 가능성 즉, 근접성 역시 지지 자원의 유무만큼이나 중요하다. 대학생 시기는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생활하는 기회가 증가하는 시기로 그 속에서 처음 겪게 되는 적응상의 문제에

대한 결정과 판단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가족으로부터의 물리적 거리가 부모의 지지라는 자원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접하게 되면서 기존의 지지 체계였던 가족과 분리되는 경험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향수(homesickness)에 초점을 두고 수행되어 왔다. 향수는 가족 구조로부터 심리적으로 분리된 결과 나타나는 것으로 부적응을 나타내는 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Gasselsberger(1982)에 의하면, 집으로부터 떠나는 것과 관련된 지리적, 사회적 변화는 향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향수란 집과 지나간 과거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는 복잡한 증후군으로 정의할 수 있다(Fisher, 1989). 많은 연구에서 다수의 남녀 대학생들이 대학생 시기에 적어도 처음 몇 달 동안 향수를 느끼며, 이러한 향수가 대학생의 적응에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Fisher, Murray, 그리고 Frazer(1985)는 자신이 향수를 느낀다고 보고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었고, 대학에 적응하는 데에도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밝혀냈다. Brewin, Furnham, & Howes(1989)는 64명의 대상 중 39%가 대학 1학년 시기에 향수를 경험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다른 연구들에서는 60~70%의 다소 많은 수의 학생들이 향수를 느끼고 있다고 보고되었다(Fisher & Hood, 1987). 또한 Burt(1993)의 연구에서 향수는 학생들의 주의집중 능력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집으로부터의 실제 거리가 부모의 지지에 대한 근접성을 낮추고 향수를 야기하기는 하지만, 실제 거리보다는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더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1학년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Mooney, Sherman, 그

리고 Lo Presto(1991)의 연구에서는 집으로부터의 실제 거리는 대학 적응과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그러나 집으로부터의 지각된 거리는 대학 적응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으며 집으로부터의 거리를 멀게 지각할수록 대학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생활하게 되는 대학생들의 경우 기존의 지지 자원이었던 부모의 지지를 사용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새로운 지지 자원을 개발해야 하는 부담 또한 가지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지지 자원이 있어도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지각하지 못한다면 심리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고 전반적인 적응 수준을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반드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만은 볼 수 없다. Mooney 등(1991)도 그들의 연구에서는 가족으로부터의 지지의 질을 측정하는 변인 없이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만을 변인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집으로부터의 거리를 가깝게 지각한 응답자들 가운데 오히려 집으로부터 분리되고 싶은 소망(예를 들어, 불행한 가족 생활, 부모의 구속 등 때문)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후속연구에서 가족의 지지에 대한 지각 역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지리적 거리에 대한 사회학습 이론의 관점과 그것이 대학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지지하는 것이다. 즉 개인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그것이 실제적인 것이든 지각된 것이든- 외적인 강화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자원이 필요하게 되고, 환경적 유관성을 재정의할 필요성이 나타나게 된다(Katkovsky, 1968).

요약하면, 집으로부터 떠나 생활하는 대학생들에게 있어,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는 대학생들의 적응을 예언하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으며,

부모와의 관계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있어서 부모의 지지가 중요하다는 선행연구와, 실제 거리보다도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더 중요하며 부모의 지지 내용에 따라 지각된 거리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부모의 지지와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특히 변화가 많은 대학생 시기에 심리적 적응을 위해 요구되는 부모의 지지와 근접성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는 이후 대학생활 전반에 걸쳐 적응상의 어려움을 예언하고 대학생들의 적응에 필요한 효과적인 자원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나아가 관련된 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남녀 대학생 75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변인에는 성별, 학년, 대학명, 거주 형태(자가, 하숙, 자취, 기숙사, 친척집 등), 현재의 거주지, 현재의 동거인, 부모의 생존 여부, 부모의 교육 수준 및 경제 수준등이 포함되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현재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도, 시)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집으로부터의 실제 거리를 측정하고, 집에 가는데 걸리는 시간, 부모와의 물리적 접촉 빈도(전화, 방문 등) 등이 추가로 조사되었다.

성별은 남학생 269명(35.6%), 여학생 487명

(64.4%) 이었고, 학년의 경우 골고루 포함되었으나 1학년과 4학년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부모와의 동거여부는 동거 389명(51.5%), 비동거 367명(48.5%) 으로 거의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2. 측정 도구

1) 생활 스트레스원과 사회적 자원 검사 (Life-Stressors and Social Resources Inventory-Youth Form; LISRES-Y)

지각된 부모의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생활 스트레스원과 사회적 자원 검사(Life-Stressors and Social Resources Inventory-Youth Form)의 세 가지 측정치, 어머니의 지지, 아버지의 지지, 부모간 갈등을 사용하였다. 본 검사는 Moos와 Moos(1994)가 개발한 것으로, 연구자가 번역,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지지 측정치는 어머니의 지지에 대한 긍정적인고 부정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버지의 지지 측정치 역시 아버지의 지지에 대한 긍정적인고 부정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12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어머니의 지지를 측정하는 문항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부모간 갈등이 자녀와 부모간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Grych & Fincham, 1990)가 있으므로, 부모의 지지를 측정하는데 부모간 갈등 측정치를 포함시켰다. 부모간 갈등 측정치는 부모의 관계를 측정하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검사의 세가지 측정치는 모두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 부터 '자주 그렇다(5)' 사이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어머니의 지지와 아버지의 지지에 대한 총점은 부정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역산한 후, 각 12개의

문항에 대한 응답의 합으로 산출되었다. 부모간 갈등에 대한 총점은 역산된 5개 문항 응답치의 총점으로 산출되었다. 따라서 부모간 갈등의 총점이 높을수록 갈등 수준은 낮은 것을 의미한다.

Holahan과 Valentiner, 그리고 Moos(1995)에 의하여 보고된 Cronbach의 α 는 어머니의 지지 .89, 아버지의 지지 .90, 그리고 부모간 갈등 .90이었다. 본 연구의 경우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의 α 는 부모의 지지 전체가 .88이었으며, 어머니의 지지 .85, 아버지의 지지 .84, 부모간 갈등 .88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부모의 지지에 대한 측정치가 요구되므로 어머니의 지지 총점과 아버지의 지지 총점, 그리고 역산된 부모간 갈등 총점을 합하여 부모의 지지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2)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 (Perceived Distance from Home)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 측정은 Mooney, Sherman, 그리고 Lo Presto(1991)가 연구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절차를 이용하였다.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변인을 묻는 설문 문항에 부모가 있는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얼마나 멀게 느껴지는가를 묻는 문항을 포함시키고 9점 척도를 사용하여, '함께 살고 있다(1)' 부터 '매우 멀리 있다(9)' 사이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3) 대학생 적응 척도(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

대학생의 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Baker와 Siryk(1984)이 제작하고 김은정(1992)이 번역한 대학생 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대학생 적응 척도는 총 67문항의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2개의 문항은 어느 하위척도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몇몇 문항들은 2개의 하위척도에 중복 포함되어 있다. 첫 번째로 학업적 적응(academic adjustment) 척도는 2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학생들이 대학내에서 학업과 관련된 생활(시험, 수업 등)에 적응하는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하위척도는 사회적 적응(social adjustment) 척도로 20문항이며, 대학생들이 대학내에서 대인관계나 과외활동과 같은 생활에 적응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세 번째는 개인-정서적 적응(personal-emotional adjustment) 척도로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심리적 스트레스 및 신체화 장애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환경에의 적응(institutional attachment) 척도는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학생들이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애착이나 호감의 정도로서 대학과 학생간의 유대감 정도를 측정한다.

대학생 적응 척도는 9점 척도로, 응답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9)' 사이에 응답하게 되어 있다. 채점은 먼저 부적응적인 내용의 문항들을 역산한 후, 각 하위척도에 해당하는 문항의 응답들을 합하여 하위척도의 총점을 산출하고, 전체 67문항의 응답들을 합하여 전체척도의 총점을 산출하였다.

Baker와 Siryk(1984)의 연구에서 본 척도의 Cronbach α 는 전체척도가 .94, 하위척도는 .73에서 .89였으며, 번역된 척도의 Cronbach α 는 전체척도가 .92, 하위척도는 .78에서 .83이었다(현진원, 1992).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의 α 는 전체척도가 .91, 하위척도는 .80에서 .87이었다.

3. 연구절차

설문은 1998년 10월 26일부터 11월 14일 사이에 연세대학교 및 타 대학에서 교양 심리학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총 설문 문항은 인구학적 변인을 묻는 문항을 제외하고 97문항이며,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20~25분 이었다.

결 과

1. 부모의 지지와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간 상관분석

부모의 지지 및 하위척도와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 먼저 부모의 지지 전체는 전체 적응($r=.20$, $p<.001$), 학업적 적응($r=.16$, $p<.001$), 사회적 적응($r=.14$, $p<.001$), 개인-정서적 적응($r=.21$, $p<.001$), 대학 환경에의 적응($r=.15$, $p<.001$)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어머니의 지지와 아버지의 지지도 전체 적응과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개인-정서적 적응, 대학환경에의 적응과 정적인 상관을 보여주었다. 부모간 갈등은 역산한 5개 문항의 응답치의 총점으로 산출되었으므로 부모간 갈등의 총점이 높을수록 갈등 수준은 낮은 것을 의미하는데, 개인-정서적 적응만이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r=.18$, $p<.001$).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전체 적응($r=-.08$, $p<.05$), 학업적 적응($r=-.08$, $p<.05$), 개인-정서적 적응($r=-.14$, $p<.001$)과 부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부수적으로 실제 집으로부터의 거리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

의 관계를 검증하였는데, 결과는 전체 적응과 하위 척도 모두에서 어떠한 상관도 나타나지 않았다.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과 부모의 지지,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에 대한 상관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2. 부모의 지지와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지지와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심리적 적응 수준이 성별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므로 먼저 두 변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변인에 따른 심리적 적응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성별에 따라서는, 심리적 적응의 하위척도 중 개인-정서적 적응에 차이가 있었으며, 남자 집단이 여자 집단보다 더 높은 적응 수준을 나타내었다 ($F_{1,744}=15.34$ $p<.001$). 반면 학년에 따라서는, 전체 적응($F_{3,690}=11.40$ $p<.001$), 학업적 적응($F_{3,729}=11.22$ $p<.001$), 사회적 적응($F_{3,720}=10.35$ $p<.001$), 대학환경에의 적응($F_{3,734}=21.73$ $p<.001$)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전체 적응과 사회적 적응, 대학환경에의 적응은 2학년이 적응 수준이 가장 낮고 1학년, 3학년, 4학년의 순으로 높아지며, 학업적 적응은 2학년이 적응 수준이 가장 낮고 1학년, 4학년, 3학년의 순으로 높아졌다.

전체 적응에 대하여 학년을 통제하고 부모의 지지,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학년, 부모의 지지,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는 전체 적응 변량의 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_{3,674}=18.59$, $p<.001$). 학년의 전체 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3%였고 $\beta = .17(t_{674}=4.66$, $p<.001)$ 로 학년 증가와 함께 적응 수준 역

표 1.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 및 하위척도와 부모의 지지 및 하위 척도,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와 실제 거리의 상관

변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전체 적응	-										
2.학업적응	.85***	-									
3.사회적응	.83***	.55***	-								
4.개인-정서적응	.70***	.45***	.39***	-							
5.대학환경적응	.85***	.62***	.80***	.42***	-						
6.부모의 지지	.20***	.16***	.14***	.21***	.15***	-					
7.어머니의 지지	.19***	.16***	.15***	.14***	.18***	.70***	-				
8.아버지의 지지	.19***	.18***	.15***	.15***	.14***	.75***	.35***	-			
9.부모간 갈등	.07	.01	.04	.18***	.02	.78***	.26***	.34***	-		
10.지각된 거리	-.08*	-.08*	-.05	-.14***	.02	.07	.18***	.06	-.07	-	
11.실제거리	-.04	-.05	-.03	-.05	-.01	.10**	.14***	.08*	.02	.75***	-
사례수	694	733	724	746	738	745	749	708	701	756	748
평 균	354.63	118.38	109.97	74.64	93.00	42.33	43.83	40.08	17.90	3.64	95.38
표준편차	60.14	23.07	23.85	17.37	17.64	6.27	7.24	7.94	4.05	3.05	164.92

* $p < .05$ ** $p < .01$ *** $p < .001$

표 2. 부모의 지지와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 및 하위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인	step/변인	R	R ²	adj. R ²	change statistics		최종 모형	
					R ² change	F _{change}	β	t
전체 적응	1. 학년	.17	.03	.03	.03	20.90***	.17	4.67***
	2. 부모의 지지	.26	.07	.07	.04	27.13***	.20	5.43***
	3. 지각된 거리	.28	.08	.07	.01	6.54*	-.10	-2.56*
학업 적응	1. 학년	.15	.02	.02	.02	17.11***	.15	4.20***
	2. 부모의 지지	.22	.05	.04	.02	17.68***	.16	4.41***
	3. 지각된 거리	.23	.06	.05	.01	5.84*	-.09	-2.42*
사회 적응	1. 학년	.17	.03	.03	.03	20.67***	.17	4.59***
	2. 부모의 지지	.22	.05	.04	.02	13.88***	.14	3.73***
개인-정서적응	1. 성별	.14	.02	.02	.02	15.42***	.12	3.44**
	2. 부모의 지지	.24	.06	.06	.04	30.02***	.21	5.82***
	3. 지각된 거리	.28	.08	.08	.02	15.16***	-.14	-3.89***
대학환경적응	1. 학년	.24	.06	.06	.06	43.58***	.24	6.68***
	2. 부모의 지지	.28	.08	.08	.02	17.55***	.15	4.19***

* $p < .05$ ** $p < .01$ *** $p < .001$

시 증가하였으며, 부모의 지지는 설명력 4%, $\beta = .20(t_{674}=5.43, p<.001)$ 으로 역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는 전체 적응 변량의 1%를 설명하였으며 $\beta = -.10(t_{674}=-2.56, p<.05)$ 으로, 거리가 멀수록 적응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적응에 대해서도 역시 학년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의 지지,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학년, 부모의 지지,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는 학업적 적응 변량의 6%를 설명하였다($F_{3,712}=13.76, p<.001$). 학년의 학업적 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2%였으며, $\beta = .15(t_{712}=4.20, p<.001)$ 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적응 수준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지지는 학업적 적응 변량의 2%를 설명하였으며 $\beta = .16(t_{712}=4.41, p<.001)$ 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는 1%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beta = -.09(t_{712}=-2.42, p<.05)$ 로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학년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의 지지,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학년과 부모의 지지는 사회적 적응 변량의 5%를 설명하였으며($F_{2,705}=17.46, p<.001$),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는 모형에 포함되지 못했다. 학년의 사회적 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3%, $\beta = .17(t_{705}=4.59, p<.001)$ 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적응 수준도 증가하였다. 부모의 지지는 사회적 적응 변량의 2%를 설명하였으며 $\beta = .14(t_{705}=3.73, p<.001)$ 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서적 적응에 대해서는 성별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의 지지,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성별, 부모의 지지,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는 개인-정서적 적응 변량의 8%를 설명하였다($F_{3,725}=20.70,$

$p<.001$). 성별의 개인-정서적 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2%였으며, $\beta = .12(t_{725}=3.44, p<.01)$ 로 남자집단이 여자집단보다 높은 적응수준을 나타냈다. 부모의 지지는 4%의 설명력을 보였고 $\beta = .21(t_{725}=5.82, p<.001)$ 로 역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는 개인-정서적 적응 변량의 2%를 설명하였으며 $\beta = -.14(t_{725}=-3.89, p<.001)$ 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환경에의 적응에 대해서, 학년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의 지지와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학년과 부모의 지지는 대학환경에의 적응 변량의 8%를 설명하였으며($F_{2,718}=31.06, p<.001$),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는 모형에 포함되지 못했다. 학년은 대학 환경에의 적응에 대한 설명력 6%, $\beta = .24(t_{718}=6.68, p<.001)$ 로 학년 증가와 함께 적응 수준도 증가하였으며, 부모의 지지는 설명력 2%, $\beta = .15(t_{718}=4.19, p<.001)$ 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지지와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 및 하위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다음으로, 부모의 지지 하위척도와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 및 하위척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전체 적응과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대학환경에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학년과 개인-정서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성별을 통제 후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학년을 통제하고 어머니의 지지, 아버지의 지지, 부모간 갈등,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전체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학년, 아버지의 지지, 어머니의 지지,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의 순으로 모형에 포함되었으며($F_{4,633}=15.22, p<.001$), 전체 적응 변량의 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학년의 전체 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2%였고 $\beta = .14(t_{633}=3.69, p<.001)$ 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적응 수준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지지는 설명력 4%, $\beta = .15(t_{633}=3.75, p<.001)$, 어머니의 지지는 설명력 1%, $\beta = .14(t_{633}=3.46, p<.01)$ 로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는 전체 적응 변량의 2%를 설명하였으며 $\beta = -.13(t_{633}=-3.37, p<.01)$ 으로, 부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학업적 적응에 대하여 학년을 통제한 상태에서 어머니의 지지, 아버지의 지지, 부모간 갈등,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학년, 아버지의 지지,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 어머니의 지지 순으로 모형에 포함되었으며 ($F_{3,666}=11.30, p<.001$), 학업적 적응 변량의 6%를 설명하였다. 학년의 학업적 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2%였으며, $\beta = .12(t_{666}=3.18, p<.01)$ 로 학년 증가와 함께 적응 수준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지지는 학업적 적응 변량의 3%를 설명하였으며 $\beta = .14(t_{666}=3.50, p<.01)$ 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는 1%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beta = -.11(t_{666}=-2.93, p<.01)$ 로 거리가 멀수록 적응 수준이 낮아졌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지지는 설명력 1%, $\beta = .11(t_{666}=2.68, p<.01)$ 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학년을 통제한 상태에서 어머니의 지지, 아버지의 지지, 부모간 갈등,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학년과 아버지의 지지, 어머니의 지지 순으로 모형에 포함되었으며 ($F_{3,661}=12.05, p<.001$), 사회적 적응 변량의 5%를 설명하였다. 학년의 사회적 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2%였으며, $\beta = .15(t_{661}=3.84, p<.001)$ 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적응 수준도 증가하였다. 아버지의 지지는 설명력 2%, $\beta = .12(t_{661}=2.88,$

$p<.01)$ 였으며, 어머니의 지지는 설명력 1%, $\beta = .09(t_{661}=2.21, p<.05)$ 로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서적 적응에 대해서는 성별을 통제한 상태에서 어머니의 지지, 아버지의 지지, 부모간 갈등, 그리고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성별, 부모간 갈등,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 어머니의 지지, 아버지의 지지의 순으로 모형에 포함되었으며 ($F_{5,679}=12.01, p<.001$), 개인-정서적 적응 변량의 8%를 설명하였다. 성별의 개인-정서적 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2%였으며, $\beta = .11(t_{679}=2.85, p<.01)$ 로 남자집단이 여자집단보다 높은 적응수준을 보였다. 부모간 갈등은 설명력 3%, $\beta = .09(t_{679}=2.20, p<.05)$ 로 부모간 갈등이 적을수록 높은 적응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는 개인-정서적 적응 변량의 1%를 설명하였으며 $\beta = -.15(t_{679}=-4.00, p<.001)$ 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지지는 설명력 2%, $\beta = .12(t_{679}=2.92, p<.01)$ 였으며, 아버지의 지지는 설명력 1%, $\beta = .10(t_{679}=2.36, p<.05)$ 으로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환경에의 적응에 대해서, 학년을 통제한 상태에서 어머니의 지지와 아버지의 지지, 부모간 갈등,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학년, 어머니의 지지, 아버지의 지지 순으로 모형에 포함되었으며 ($F_{3,673}=18.82, p<.001$), 대학환경에의 적응 변량의 8%를 설명하였다. 학년은 대학환경에의 적응에 대한 설명력이 5%, $\beta = .21(t_{673}=5.58, p<.001)$ 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적응 수준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지지는 설명력 2%, $\beta = .12(t_{673}=2.92, p<.01)$ 였고, 아버지의 지지는 설명력 1%, $\beta = .10(t_{673}=2.49, p<.05)$ 으로, 두 변인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지지 하위척도와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 및 하위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부모의 지지와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간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년을 공변량으로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의 지지와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집단간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의 이요인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이요인 변량분석을 위하여 부모의 지지 점수에 따른 상위 25% 집단과 하위 25% 집단을 지지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정의하고,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 역시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가까운 집단과 먼 집단으로 나누었다. 각각의 사례수가 일치하지 않았으므로 변량의 동질성을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_{3,234} = .79, p > .05$). 학년, 부모의 지지와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집단간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학년($F_{1,233} = 6.51, p < .05$), 부모의 지지($F_{1,233} = 22.09, p < .001$),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F_{1,233} = 6.45, p < .05$)의 수준에 따라 대학

표 3. 부모의 지지 하위척도와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 및 하위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 회귀분석

종속변인	step/변인	R	R ²	adj R ²	change statistics		최종 모형	
					R ² _{change}	F _{change}	β	t
전체 적응	1.학년	.15	.02	.02	.02	14.87***	.14	3.69***
	2.아버지의 지지	.24	.06	.06	.04	24.67***	.15	3.75***
	3.어머니의 지지	.27	.07	.07	.01	8.19**	.14	3.46**
	4.지각된 거리	.30	.08	.08	.02	11.36**	-.13	-3.37**
학업 적응	1.학년	.13	.02	.01	.02	10.83**	.12	3.18**
	2.아버지의 지지	.21	.05	.04	.03	20.26***	.14	3.50***
	3.지각된 거리	.23	.05	.05	.01	6.04*	-.11	-2.93**
	4.어머니의 지지	.25	.06	.06	.01	7.16**	.11	2.68**
사회 적응	1.학년	.15	.02	.02	.02	15.47***	.15	3.84***
	2.아버지의 지지	.21	.05	.04	.02	15.30***	.12	2.88**
	3.어머니의 지지	.23	.05	.05	.01	4.88*	.09	2.21*
개인-정서적응	1.성별	.13	.02	.01	.02	11.02**	.11	2.85**
	2.부모간 갈등	.20	.04	.04	.03	18.07***	.09	2.20*
	3.지각된 거리	.24	.06	.05	.01	10.20**	-.15	-4.00***
	4.어머니의 지지	.27	.07	.07	.02	13.42***	.12	2.92**
	5.아버지의 지지	.29	.08	.07	.01	5.58*	.10	2.36*
대학환경적응	1.학년	.22	.05	.05	.05	32.71***	.21	5.58***
	2.어머니의 지지	.26	.07	.07	.02	16.41***	.17	2.92**
	3.아버지의 지지	.28	.08	.07	.01	6.19*	.10	2.49*

* $p < .05$ ** $p < .01$ *** $p < .001$

표 4. 학년, 부모의 지지와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집단간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의 평균과 표준편차

	부모의 지지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	
		가까운 집단	먼 집단
1	낮은 지지 집단	329.33(70.94) N=26	312.29(60.64) N=14
	높은 지지 집단	382.66(70.54) N=21	348.89(47.47) N=18
2	낮은 지지 집단	325.31(62.98) N=26	313.82(57.03) N=8
	높은 지지 집단	376.23(54.18) N=16	331.77(51.29) N=11
3	낮은 지지 집단	370.06(48.30) N=15	311.18(57.52) N=3
	높은 지지 집단	386.47(57.95) N=16	340.17(66.49) N=7
4	낮은 지지 집단	347.13(57.03) N=17	343.51(54.98) N=13
	높은 지지 집단	380.90(59.53) N=15	399.94(53.52) N=12

생의 심리적 적응의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또한 상호작용의 효과를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 부모의 지지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효과는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_{1,233} = .22, p > .05$). 학년을 공변량으로 하여 부모의 지지와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집단간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의 이요인 변량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3. 성별에 따른 부모의 지지와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Mooney, Sherman, & Lo Presto, 1991)가 여대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성별에 따라 부모의 지지와 지각된 집으로

표 5. 학년을 공변량으로 하여 부모의 지지와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집단간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의 이요인 변량분석

변 인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년(공변량)	23213.24	1	23213.24	6.51*
부모의 지지	78731.18	1	78731.18	22.09***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	22969.09	1	22969.09	6.45*
부모의 지지*지각된 거리	781.39	1	781.39	.22
오 차	830296.71	233	3563.51	
전 체	960063.36	237		

* $p < .05$ ** $p < .01$ *** $p < .001$

부터의 거리가 심리적 적응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 및 하위척도에 대한 분석을 부수적으로 실시하였다.

남자 집단에 대하여 전체 적응과 각 하위척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년을 통제하고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인-정서적 적응에 대해서만 부모의 지지와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모형에 포함되었다 ($F_{2,258}=7.98, p<.001$).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는 개인-정서적 적응 변량의 3%를 설명하였고 $\beta = -.17 (t_{258} = -2.73, p<.01)$ 로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수록 개인-정서적 적응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전체 적응과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대학환경에의 적응을 설명하는 회귀

표 6. 성별에 따른 부모의 지지와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 및 하위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성별	종속변인	step/변인	R	R ²	adj R ²	change statistics		최종 모형	
						R ² change	Fchange	β	t
남 자	전체 적응	1. 학년	.17	.03	.02	.03	7.09**	.16	2.62**
		2. 부모의 지지	.26	.07	.06	.04	11.03**	.21	3.32**
	학업 적응	1. 부모의 지지	.15	.02	.02	.02	5.89*	.15	2.43*
		1. 학년	.19	.04	.03	.04	9.10**	.18	2.97**
	사회 적응	2. 부모의 지지	.24	.06	.05	.02	6.16*	.15	2.48*
		1. 부모의 지지	.18	.03	.03	.03	8.32**	.20	3.34**
	개인-정서적 적응	2. 지각된 거리	.24	.06	.05	.03	7.43**	-.17	-2.73**
		1. 학년	.19	.04	.03	.04	9.68**	.19	3.04**
	대학환경적응	2. 부모의 지지	.24	.06	.05	.02	6.03*	.15	2.46*
		1. 학년	.18	.03	.03	.03	14.00***	.18	3.81***
여 자	전체 적응	2. 부모의 지지	.26	.07	.06	.04	16.49***	.19	4.11***
		3. 지각된 거리	.28	.08	.07	.01	5.94*	-.11	-2.44*
		1. 학년	.16	.03	.03	.03	12.82***	.17	3.67**
	학업 적응	2. 부모의 지지	.23	.05	.05	.03	13.39***	.17	3.74***
		3. 지각된 거리	.26	.07	.06	.01	7.06**	-.12	-2.66**
		1. 학년	.16	.03	.02	.03	11.50**	.16	3.45**
	사회 적응	2. 부모의 지지	.20	.04	.04	.02	7.98**	.13	2.86**
		3. 지각된 거리	.23	.05	.05	.01	4.57*	-.10	-2.14*
		1. 부모의 지지	.22	.05	.05	.05	23.34***	.22	4.90***
	개인-정서적 적응	2. 지각된 거리	.25	.06	.06	.02	8.09**	-.13	-2.84**
1. 학년		.26	.07	.06	.07	33.25***	.26	5.88***	
대학환경적응	2. 부모의 지지	.30	.09	.09	.02	11.91**	.15	3.45**	

* $p<.05$ ** $p<.01$ *** $p<.001$

모형에 대해서는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유의미한 변인으로 포함되지 못했다.

여자 집단에 대하여 전체 적응과 각 하위척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년을 통제하고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학환경에의 적응을 제외한 전체 적응과 나머지 하위척도에서 모두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는 심리적 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의 지지와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는 전체 적응($F_{3,432}=12.43, p<.001$)과 학업적 적응($F_{3,462}=11.32, p<.001$), 그리고 사회적 적응($F_{3,455}=8.13, p<.00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모형에 포함되었으며, 모두 각 종속 변인 변량의 1%를 설명하였다. 개인-정서적 적응에 대해서는 부모의 지지와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만이 모형에 포함되었고($F_{2,471}=15.89, p<.001$), 변량의 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환경에의 적응에 대한 모형에는 학년과 부모의 지지만이 포함되고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는 포함되지 않았다($F_{2,467}=22.97, p<.001$). 성별에 따른 부모의 지지와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 및 하위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외적 자원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부모의 지지와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학년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의 지지와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는 대학생의 심리

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학년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의 지지만이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여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학년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의 지지와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지지와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 및 하위척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전체 적응과 하위척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변인인 학년과 성별을 통제하고 분석한 결과, 부모의 지지는 전체 적응과 하위척도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는 전체 적응과 학업적 적응, 개인-정서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지지의 경우 전체 적응과 하위척도 모두에서 정적인 상관과 적응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지지가 높을수록 더 높은 적응 수준을 보여주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지지가 대학생 시기의 여러가지 과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개인외적 자원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대학생들의 정신 건강 및 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임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는 부모의 지지에 대한 Holahan, Valentiner 그리고 Moos(1995)를 비롯한 이전의 선행연구 결과들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는 전체 적응과 학업적 적응, 개인-정서적 적응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수록 전체 적응과 학업적 적응, 개인-정서적 적응 수준이 낮아졌는데, 이는 Mooney, Sherman, & Lo Presto(1991)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의 전반적인 면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학업적 적응과 개인-정서적 적응 수준을 예언하는 변인이라는 결과는 개인의적 자원 뿐만 아니라 자원への 접근 가능성 역시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이 요구되는 대학생 시기에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수록 기존의 지지 자원을 활용하여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새로운 지지 자원을 개발해야 하는 부담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시기가 대부분 최초로 집으로부터 떨어져 생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부담은 더욱 크게 지각될 수 있다.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학업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이에 부모의 즉각적인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학업적 적응은 학과와 학업적 성취에 대한 만족도와 함께 학업 생활에 대한 적응 수준을 함께 측정하는데,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수록 학업 생활을 스스로 조절해 나가야 하는 부담감이 클 수 있다. 개인-정서적 적응의 경우에도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모의 정서적 지지를 얻기가 어렵고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찾기 힘들 수 있으며,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멀다는 것 자체가 향수와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야기할 수도 있다. 반면 사회적 적응은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와 상관이나 나타나지 않았는데, 사회적 적응은 대학에서의 대인관계와 과외활동에서의 적응 수준을 측정하므로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에 영향을 받기 보다는 또래 집단에 대한 대인 관계 기술과 더 큰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환경에의 적응 역시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보다는 개인의 대학에 대한 기대나 만족도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와는 상관이나 나타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수록 부모의 지지를 대체할 자원을 찾기 위하여 오히려 대인

관계나 대학환경 자체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도 있다.

부수적으로 실시한 실제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전체 적응과 하위척도 모두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거리보다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더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변인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실제 거리는 대학 생활에 대한 예언 변인으로 적절치 못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부모의 지지 하위척도와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 및 하위척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전체 적응과 하위척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변인인 학년과 성별을 통제하고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지지와 아버지의 지지는 전체 적응과 하위척도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간 갈등은 개인-정서적 적응에만,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는 전체 적응과 학업적 적응, 개인-정서적 적응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지지는 전체 적응과 하위척도 모두에서 정적인 상관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하위 척도 중 대학환경에의 적응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의 공감과 지지가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애착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대학환경에의 적응은 대학과 학생간의 형성된 유대관계의 질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어머니의 지지는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몰입하도록 도움으로써 유대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학업을 수행해나가는데 큰 힘이 되어주는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의 지지의 경우, 전체 적응과 각 하위척도에서 모두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으며 하위 척도 중 학업적 적응과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진로 결정시 아버지의 의사가 중요하게 반영되고, 다른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학업적 적응에 대한 아버지의 관여도가 높기 때문에 학업적 적응에 대한 아버지의 지지가 중요한 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간 갈등은 개인-정서적 적응에만 높은 상관을 보였고 가장 큰 설명력을 나타냈는데, 이는 대학생들의 경우 어느 정도 성숙하였고 가족 이외의 다른 관계망도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간 갈등과 같은 부모 관계 자체에 의해서 전반적인 심리적 적응이나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대학환경에의 적응등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부모간 갈등이 개인-정서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이 대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 부모의 관계가 조화롭지 못하고 갈등이 많은 경우 그 자체가 심리적인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다른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발되는 문제에 대해 부모의 정서적 지지를 받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대하여 부모의 지지와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학년을 공변량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부모의 지지와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주효과는 나타났으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가까운 집단과 먼 집단 모두 부모의 지지가 높은 집단이 부모의 지지가 낮은 집단보다 적응 수준이 더 높았다. 이는 Kenny(1987)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그는 집을 떠나 대학에 다니고 있는 1학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유대가 대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연구 결과 부모와의 유대가 잘 형성된 대학생들이 더 낮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였다. 집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역시 부모와의 유대가 잘 형성된 대학생이

더 스트레스 수준이 낮았다는 결과는 부모와의 관계가 안정되고 지지적으로 지각되는 경우에 대학을 가기 위하여 집을 떠나는 것이 환경을 탐색하고 통제하기 위한 긍정적 기회로 지각될 수 있고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도 부모가 지지 자원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성별에 따라 부모의 지지와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심리적 적응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 및 하위척도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 남자 집단의 경우 개인-정서적 적응에 대해서만 부모의 지지와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 모두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나, 여자 집단은 전체 적응과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개인-정서적 적응에서 두 변인이 모두 심리적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 집단은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개인-정서적 적응에만 모형에 포함되었고, 여자 집단의 경우는 대학환경에의 적응을 제외하고 모두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모형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성별 차이는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 효과라 할 수 있는데, 남자 집단의 경우에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수록 부모의 정서적 지지를 구하기가 어려우며 심리적 불안정감을 지각하고 향수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자 집단의 경우에는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개인-정서적 적응 뿐만 아니라 전체 적응과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여학생들의 경우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수록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또한 정서 이외의 영역에서도 대처방식을 찾고 이에 적응해 나가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여학생의 경우에는 부모의 지지에 대한 근접성이 적응 전반에 걸쳐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학생들은 부모의 지지와 함께 독립

성을 장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게 되며 따라서 대학생활을 하는데 있어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멀더라도 지지적 기반이 있는 남학생들은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스스로 탐색하고 적절한 대처 방식을 찾아나가고자 하게 된다. 그러나 여학생들은 대부분 독립성을 장려하는 분위기 보다는 다소 부모에 의존적인 상태에서 성장하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지지적 기반이 있는 여학생들이라도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즉각적 지지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면 남학생들보다 더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성별과 학년은 심리적 적응 수준에 대한 집단간 차이를 나타냈기 때문에 두 변인이 통제된 상태에서 분석이 이루어졌다. 성별에 따라 남자 집단이 여자 집단보다 개인-정서적 적응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개인-정서적 적응이 대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부정적인 정서와 신체화 장애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정서 표현이나 신체화 기제를 통한 스트레스의 대처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자주 사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학년의 경우, 전체 적응과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대학환경에의 적응에서 2학년 집단이 적응 수준이 가장 낮았고 학업적 적응을 제외하고는 4학년 집단이 적응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학업적 적응은 3학년 집단이 가장 높았다. 이는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게 될 때, 2학년이 되면서 1학년때 가졌던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측면들에 대해 경험하게 되고 자신이 선택한 진로나 대학에서의 대인관계, 대학 자체에 대한 유대감 등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경향이 증가하며, 그 후 점차 학년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하고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되어 적응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학업적 적응의 경우 4학년보다 3학년의

적응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4학년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개인-정서적 적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학년의 적응 수준이 가장 낮고 3학년의 적응 수준이 가장 높았으나 의미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개인-정서적 적응이 현재의 내적, 외적 상황에서 부여되는 스트레스에 대한 즉각적 정서적 반응이 주로 측정되기 때문에 학년의 증가에 따른 대처 방식의 성숙과는 상관이 적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개인외적 자원으로서의 부모의 지지와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의 효과를 알아본 결과, 두 변인 모두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을 예언하는 변인으로서 대학생활 적응에 필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에게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의 효과가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본 연구는 몇가지 제한점을 가지는데, 먼저 연구에 포함된 부모의 지지와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을 설명하는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본 연구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학년을 통제하여 두 변인의 효과를 검증하였고,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 개인내적 자원을 포함하지 않고 개인외적 자원만을 포함하여 측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생활의 적응은 매우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예언변인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개인외적 자원 뿐 아니라 개인내적 자원 역시 고려해야 하고 또한 개인 외적 자원과 내적 자원간의 상호작용과 매개변인들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서도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 거리의 범위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오기 힘들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집으

로부터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하여 9점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다양한 점수들이 평정되지 못하였고 특정 점수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빈도가 매우 낮은 것도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를 측정하는데 보다 정밀한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로,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모와 비동거하는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집단과 비동거하고 있는 집단의 비율이 거의 같았는데, 만일 비동거 집단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의 효과를 더 상세히 알아볼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비동거 집단 특유의 요인들, 예를 들어 부모와의 다른 사회적 지지 자원들의 활용과 적응간 관계를 알아보는 것도 비동거 집단의 적응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관련되는 요인이므로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대학생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대학생들의 경우, 새로운 대학환경에 적응하고 스스로 생활을 조절해 나가는데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통하여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지지 자원을 개발하도록 돕고, 다양하고 효과적인 대처방식들을 훈련시킴으로써 개인내적 자원을 풍부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은정(1992). 대학생들의 학업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 연세상담연구, 8, 85-114. 연세대학교 학생상담소.

- 정은희(1992).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대학생활적응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현진원(1992). '완벽주의' 성향과 평가수준이 과제수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vison, W. R., & McAlpine, D. D. (1992). Gender differences in symptoms of depression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3, 77-96.
- Baker, R. W., & Siryk B.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9-189.
- Bandura, A. (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 122-147.
- Bell, N. J., Avery, A. W., Jenkins, D., Feld, J., & Schoenrock, C. J. (1985). Family relationships and social competence during late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4, 109-119.
- Borrine, M. L., Handal, P. J., Brown, N. Y., & Searight, H. R. (1991). Family conflict and adolescent adjustment in intact, divorced, and blended families. *J.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 753-755.
- Brewin, C. R., Furnham, A., & Howes, M. (1989). Demographic and psychological determinants of homesickness and confiding among student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80, 467-477.
- Burt, C. D. B. (1993). Concentration and academic ability following transition to university: An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homesicknes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3, 333-342.
- Compas, B. E. (1987). Coping with stres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01, 393-403.
- Cummings, E. M. (1987). Coping with back-

- ground anger in early childhood. *Child Development*, 58, 976-984.
- Cummings, E. M., & Davies, P. (1994). Children and marital conflict: *The impact of family dispute and resolution*. New York: Guilford Press.
- Emery, R. E. (1982). Interparental conflict and the children of discord and divorce. *Psychological Bulletin*, 92, 310-330.
- Fantuzzo, J. W., & Lindquist, C. U. (1989). The effects of observing conjugal violence on children: A review and analysis of research methodology. *Journal of Family Violence*, 4, 77-94.
- Fisher, S. (1989). Homesickness. *Cognition and Health*. London: Lawrence Erlbaum.
- Fisher, S., & Hood, B. (1987). The stress of transition to university: A longitudinal study of psychological disturbance, absent-mindedness and vulnerability to homesicknes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78, 424-441.
- Fisher, S., Murray, K., & Frazer, N. A. (1985). Homesickness, health and efficiency in first year student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5, 181-195.
- Garnezy, N., Devine, V., & Tellegen, A. (1980). *Research approaches to the study of stress-resistant children*. Paper presented to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Montreal.
- Gasselsberger, K. (1982). Depression-promoting social and territorial factors of homesickness reaction. *Zeitschrift-fur-Klinische-Psychologie: Forschungund-Praxis*, 11, 186-200.
- Grych, J. H., & Fincham, F. D. (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 267-290.
- Hamburg, B. A. (1974). Early adolescence: A specific and stressful stage of the life cycle. In G. Coelho, D. Hamburg, & J. Adams (Eds.), *Coping and adaptation*. New-York: Basic Books.
- Hoffman, J. A., & Weiss, B. (1987). Family dynamics and presenting problem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34, 157-163.
- Holahan, C. J., Valentiner, D. P., & Moos, R. H. (1995). Parental support, coping strategie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n integrative model with late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4, 633-648.
- Katkovsky, W. (1968). Social learning theory and maladjustment. In Z. Gorlow, & W. Katkovsky(Eds.), *Reading in the psychology of adjustment* (pp. 213-232). New-York: Mxgraw Hill.
- Kenny, M. E. (1987). The extent and function of parental attachment among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17-29.
- Kenny, M. E., & Donaldson, G. A. (1991). Contributions of parental attachment and family structure to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of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479-486.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Mooney, S. P., Sherman, M. F., & Lo Presto, C. T. (1991). Academic locus of control, self-esteem, and perceived distance from home as predictors of college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9, 445-448.
- Moos, R. H., & Moos, B. S. (1994). *Life Stressors and Social Resources Inventory-*

- Youth Form Manua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Odessa, FL.
- Murphy, E., Silber, E., Coehlo, G., Hamburg, D., & Greenberg, I. (1963). Development of autonomy and parent-child interaction in late adolescenc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33, 643-652.
- O'Brien, M., Bahadur, M. A., Gee, C., Balto, K., & Erber, S. (1997) Child exposure to marital conflict and child coping responses as predictors of child adjustment.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1, 39-59.
- O'Brien, M., Margolin, G., John, R. S., & Krueger, L. (1991). Mothers' and sons' cognitive and emotional reactions to simulated marital and family conflic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 692-703.
- Offer, D., & Offer, J. (1975). *From Teenage to Young Manhood*. Basic Books, New York.
- Peterson, A. C. (1980). Biopsychosocial development of sex-related differences. In J. Parsons(Ed.), *Psychobiological bases of sex-role related behaviors*. Washington D.C.: Hemisphere.
- Peterson, A. C., & Spiga, R. (1982). Adolescence and stress. in L. Goldberger & S. Breznitz (Eds.). *Handbook of stress: Theoretical and clinical aspects* (pp.515-528). New-York: Macmillan.
- Rice, K. G., Cole, D. A., & Lapsley, D. K. (1990). Separation-individuation, family cohes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Measurement validation and a test of a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195-202.

The Relationship of Parental Support, Perceived Distance from Home,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College Students

Sun-Keun Chee Jong-Chul Han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of parental support, perceived distance from home, and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adjustment.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a recruited sample of 756 four-year university students. Moos & Moos's(1994) Life-Stressors and Social Resources Inventory-Youth Form was used to obtain a measure of parental support. Perceived distance from home was measured by asking how far they currently reside from their home.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was measured by Baker & Siryk's(1984)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All were administered by the author, and if necessary, translated into Korean.

The result showed that when the effects of grade and gender were controlled, parental support was positively related total adjustment and all subscales, including academic, social, personal-emotional, and institutional attachment, and the perceived distance from home was negatively related total adjustment, academic adjustment, and personal-emotional adjustment. Parental support might affect differently by perceived distance from home. To explore this possibility, I computed a two-way ANOVA, on psychological adjustment with controlling grade as covariance. Both parental support and perceived distance from home were significant indicators of psychological adjustment, but the interaction effect was not significant. To see the impact of parental support and perceived distance from home on psychological adjustment of male and female students,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applied to each group. In male

group, parental support predicted total adjustment and all subscales significantly, and perceived distance from home predicted only personal-emotional adjustment. In female group, parental support predicted total adjustment and all subscales, and perceived distance from home predicted total adjustment and subareas except institutional attachment.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parental support and perceived distance from home are imperative to mental health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college students. The greater impact of perceived distance from home on psychological adjustment of female students illustrates that female students are more likely to have hardship when they can't receive immediate support from their parents than their male counterparts.